

보도시점 2025. 7.16.(수) 11:00
7.17.(목) 조간

배포 2025. 7.16.(수) 09:00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 CJ·샘표, 농촌 주민의 식사를 지원하는 주민생활돌봄공동체에 식료품 후원
- 주민·공동체 중심 농촌 돌봄, 민간 협력으로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 간장·고추장·조미김·설탕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4.8.17 시행)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반찬 배달, 소(小)수리 서비스,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의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이장단 회의를 거쳐 마을별 영양상태가 취약하고 고립감·우울감이 깊은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반찬 배달 및 공동식사를 지원한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정해진 활동비 내에서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식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고충을 파악하여 식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식료품 후원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지원한 식료품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서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후원은 농촌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돌봄의 가치를 민간이 함께 인정하고 응원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촌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최혜림 (044-201-1572)

- 추진목적 :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사회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5년(2022~)
- 지원대상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 * 조직 형태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 * 돌봄반장(1명 이상)은 서비스 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활동내용 : 농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돌봄 방문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지역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 돌봄반장은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추진
- 지원내용 : 국비 18억원(개소당 총 69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서비스공동체 운영비 및 돌봄반장 활동비 등
 - '25년 지원계획 : (1년차) 50백만원, (2~5년차) 69백만원
- 지원규모 : ('22) 22개소 → ('23) 30 → ('24) 33 → ('25) 40